

사/형/제/도/폐/지/만/평/집

STOP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 이젠, [완전사형폐지] 완사폐로!

2007년말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률 개정으로 완전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사/형/제/도/폐/지/만/평/집

이젠, [완전사형폐지]  
완사폐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사형제도폐지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에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의장 레나토 마르티노 추기경님과 정진석 추기경님을  
비롯하여 한국 천주교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레나토 마르티노 추기경 <i>Renato Cardinal Martino</i>	정진석 추기경 <i>정진석</i>
최창무 대주교 + 최창무	최영수 대주교 <i>최영수</i>
강우일 주교 <i>강우일</i>	이병호 주교 <i>이병호</i>
김지석 주교 <i>김지석</i>	장익주교 <i>장익</i>
최덕기 주교 <i>최덕기</i>	장봉훈 주교 <i>장봉훈</i>
이기현 주교 <i>이기현</i>	최기산 주교 + <i>최기산</i>
안명옥 주교 <i>안명옥</i>	권혁주 주교 <i>권혁주</i>
이한택 주교 <i>이한택</i>	유홍식 주교 + <i>유홍식</i>
황철수 주교 <i>황철수</i>	이용훈 주교 <i>이용훈</i>
염수정 주교 + <i>염수정</i>	김운회 주교 + <i>김운회</i>
김희중 주교 <i>김희중</i>	조규만 주교 + <i>조규만</i>
조환길 주교 + <i>조환길</i>	이형우아빠스 + <i>이형우</i>

인사말

##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7년 12월 30일은 참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할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온몸이 땀을 흘려 정도로 차가웠던 그날, 우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당시 사형수 64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64마리를 하늘로 날리며 대한민국이 마침내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한 사형폐지특별법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형제도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된 이상 더 이상 사형집행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설립하여 타 종교 및 인권·시민운동 진영과 함께 연대해 온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사형제도 폐지운동과도 끈끈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최고수'(교도소 안에서 사형수를 부르는 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또 살해 피해자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되찾아 다시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한국 천주교회 현직 주교님들 전원과 신자 12만 명이 참여한 사형제도폐지 국회입법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추계 주교회의에서도 정진석 추기경님을 비롯한 현직 주교단 전원이 18대 국회 사형폐지 특별법 입법청원서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곧 전국의 신자들의 마음을 모아 18대 국회에 우리의 뜻을 전달할 것입니다. 15대 국회부터 벌써 4번째로 국회에 발의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이미 2권의 소책자를 발행하여 전국의 본당과 수도회, 시민사회 단체에 배포하였고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출간하게 되는 이 소책자는 생명의 존엄이라는 엄숙한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물론 전국시시만화협회의 흔쾌한 동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해 흔쾌히 작품을 내어 주신 서른한분의 작가님들과 전국시시만화협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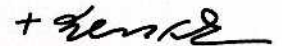
인사를 드립니다. 책을 엮으며 작품을 감상하고 나니 '만화'라는 소통의 방식을 택한 우리의 결정이 정말 옳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컷의 만화에 이토록 깊은 철학과 다양한 표현이 담길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며 이 책을 접하시는 분들도 굳이 많은 설명이 없어도 그 뜻과 소중함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생명은 누구의 것이나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진리에 공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형폐지국입니다.

2008년 11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 기 산 주교





## 사형수 마음에 어린 달

옛그제, 보름달이 하늘 가운데로 등실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저 달은 하나로되 세상천지 천의 강과 여울에는 천의 달이 물 위에 어리었습니다. <월인천강지곡>.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후 첫 번역을 멋진 불경의 한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천의 강에 뜬 천의 달'이란 표현은 그 자체로 멋진 시입니다. 여기에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이마다 제 그릇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스승들은 사랑과 자비를 가르쳤지만, 듣는 이들은 저마다 제 식대로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여 이라크인 수십만을 죽인 부시 대통령 같은 기독교인도 생겼습니다.

'월인천강'은 '천의 강'인 모든 '존재'들 속에는 '달'인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정아무개씨가 아이들을 둘씩이나 죽였습니다. 저 옛날 고재봉이며 김대두, 우범곤, 온보현, 유영철, 정남규로 이어지는 무

서운 살인범들의 계보. 이들이 나타날 때마다 세상은 흉악범들을 하루빨리 처단하라 아우성을 칩니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도나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기독교인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나와 가족을 보호하려는 본능과 응보감정의 발로입니다. 하지만 이 흉악한 이들도 사실은 부처며 예수가 비춘 천의 강 중에 하나일 터입니다.

유영철이 아무리 유영철인들 개인으로서는 천 명, 만 명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이에 비해 자유니 평등이니 민주주의니 온갖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킨 정치인들은 수십,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경쟁과 효율만을 내세워 복지나 분배 같은 공적 가치들을 뒷전에 밀어두는 정치도 그렇습니다. 결국 머리도 능력도 돈도 없는 수많은 약자들을 가난과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므로 그 해악은 정남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외환위기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깨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태를 몰고 온 국제 금융자본과 정치인이며 관료들의 책임이 온보현에 전수됐습니까.

사실 내 자식이 유괴되어 죽는다면 나 개인으로서는 범인들을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적 보복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끔찍하게 빼앗긴 저 부모들의 슬픔을 누가 무엇으로 위로해 주겠습니까. 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상처 입은 마음은 또 어쩔 것입니까. 하지만 국가는 다릅니다. 국가는 개인과 달리 감정에 치우침 없이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천 명의 개인들이 처단하라 아우성 쳐도 국가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국가는 헌법을 통해 국가 이성을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자·현인이며 양식있는 시민이며 착한 이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못된 자나 살인범도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닙니다. 무서운 흉악범들은 이 세상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존엄하다는 헌법의 이 선포는 국민을 종교적 연단에까지 끌고 나갑니다.

세계 130여개 나라가 사형을 폐지하고 유엔도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들에게 집행유예하라고 결의했습니다. 우리도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어 지난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 사람이라 부를 수 없는 흉악범도 존엄하다는 엄숙한, 그러나 감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종교적·이성적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종신형으로 사회를 지키시다. 악한 자가 사람을 아무리 끔찍하게 죽였어도 이성적이어야 할 국가마저 그와 똑같이 손에 피를 묻힐 일은 아닙니다. 악한 이나 착한 이나 그 마음에는 모두 부처·예수라는 보름달이 하나씩 떠 있습니다.

김 형 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운영위원장







신기하게도 그 손님은  
근대이야기에도 대우가  
없었으나 이 주점에서  
만은 입을 열었다.

무슨 방법이  
없나 몰라요.  
어디서 보았을까?

복만은 갑자기  
이 새네가 낯익다는  
생각을 했다.  
모조리 잡아다가  
없애버리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사형이라도  
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놈들은 살려둘  
의미가 없잖아요.  
끝치만 아픈 존재지요.  
아! 기력이 잘나지 않는다.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도 사형은  
실시안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  
복만은 살짝  
떠보기로 한다.  
사형 말고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뭐 있겠어요?  
그냥 완전하게 격리 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어찌나 그의 음성이  
단호했는지 복만은  
그런 놈들을  
살려두어서 뭐합니까?  
과연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잠깐동안 멈칫거렸다.  
그래도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사형을 시킨다고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혹시 가족을  
죽인 살인범이라도  
용서 할 수 있겠어요?  
손님들과 이 주점을 이야기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들던 질문이었다.

그래서 복만은 자신있었다.  
용서를 한다는 것과  
사형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별로 다를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가해자에게 대한  
용서를 할 수 없어도

사형에는  
반대한다?

사람들은 사형에  
반대한다고 하면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용서와 사형은  
별개라고 봐요.

사형수의 생명을 뺏는 것과  
사형수를 용서하는 것 말이죠.

무엇보다 타인의 생명을  
뺏는 것은.....

응...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다고 봐요.  
살인이죠... 살인!



살인에 착한 살인이  
어디 있고  
나쁜 살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한 살인,  
나쁜 살인.....



그들이 왜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는 것도  
국가나 사회가  
해야 할 임무가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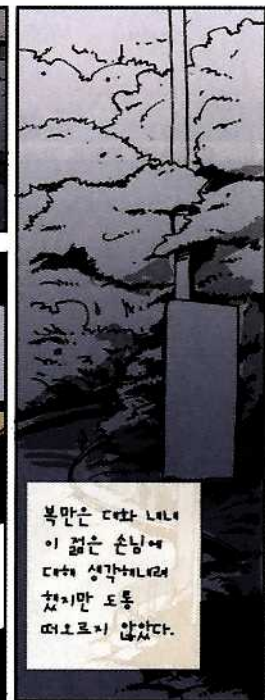
※ 생각은  
그렇다고요.....

사형 말고도 뭐  
가석방 없는 중신형  
그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사형이란 게  
한 번하면  
끝인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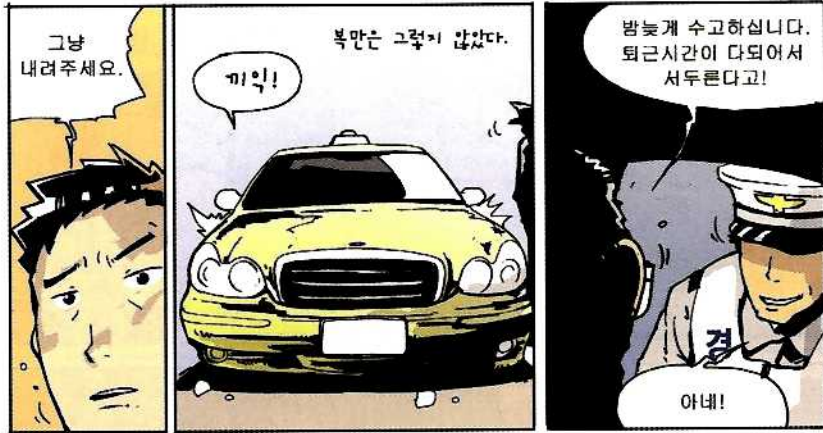
















인간의 생명은  
 들도 없는  
 귀중한 것인데도  
 우리들은 언제나  
 어떤 것이  
 생명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듯  
 행동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란 무엇인가?  
 - 생프릭 쿼페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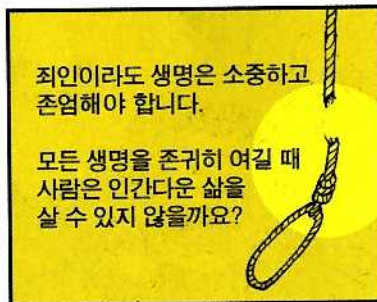
## 사형 & 살인

글/그림 정태권









사형?  
 .....  
 찬승  
 2007





서상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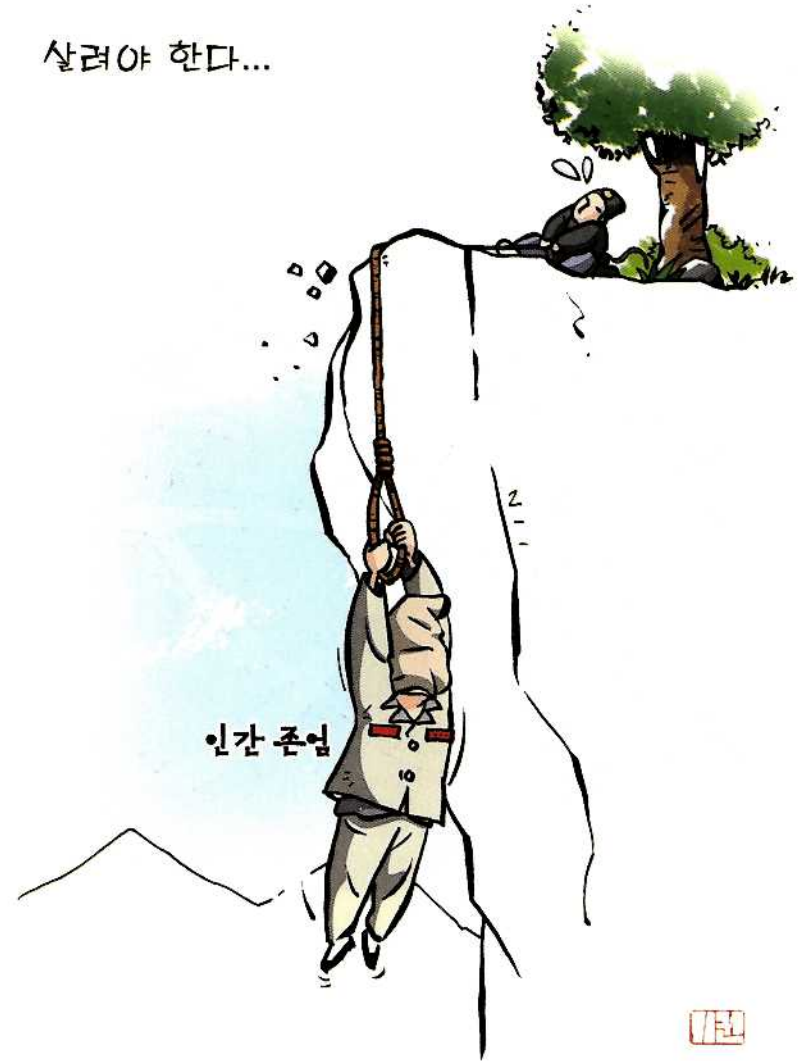
장승태

목숨위에 法



박순찬

살려야 한다...



인간 존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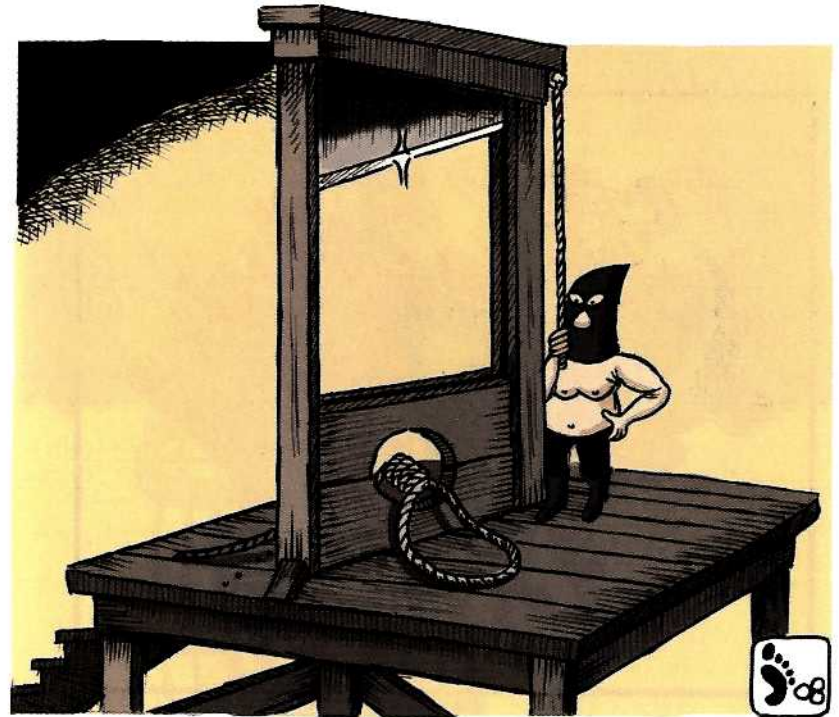


김기권





김휘승



조민성



황기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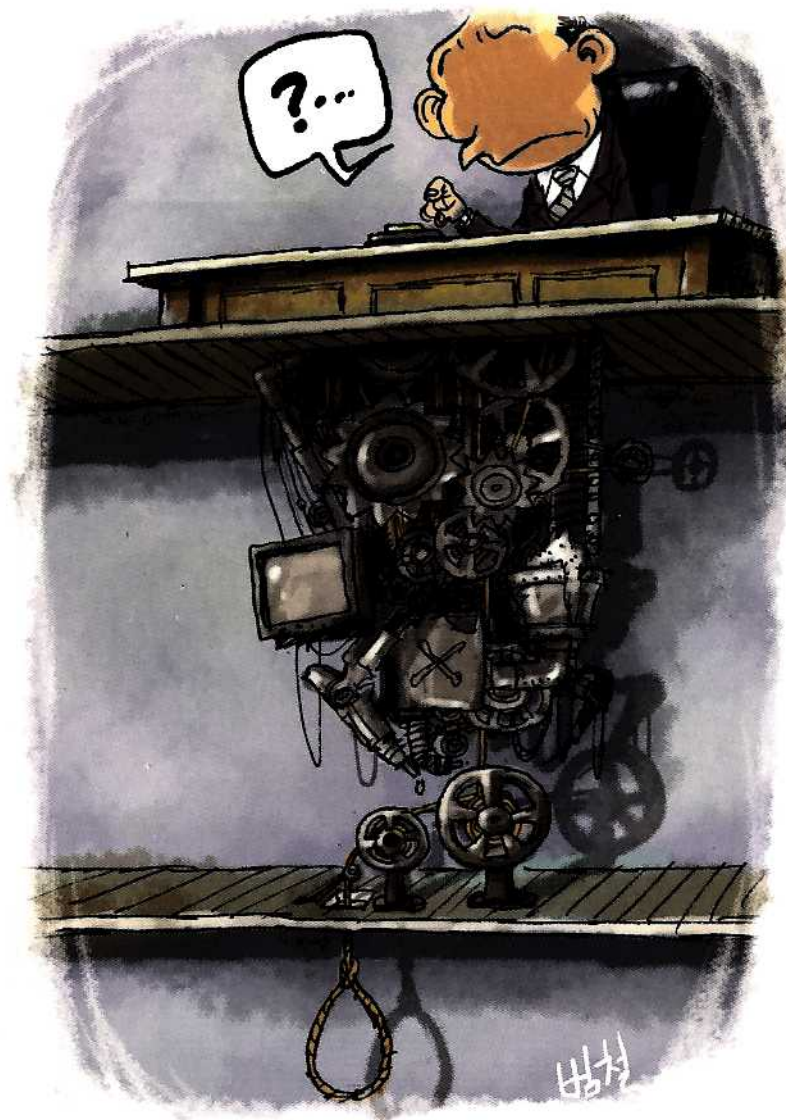
조영남





golfanji.egloos.com

하재욱



권범철



악용.남용.오용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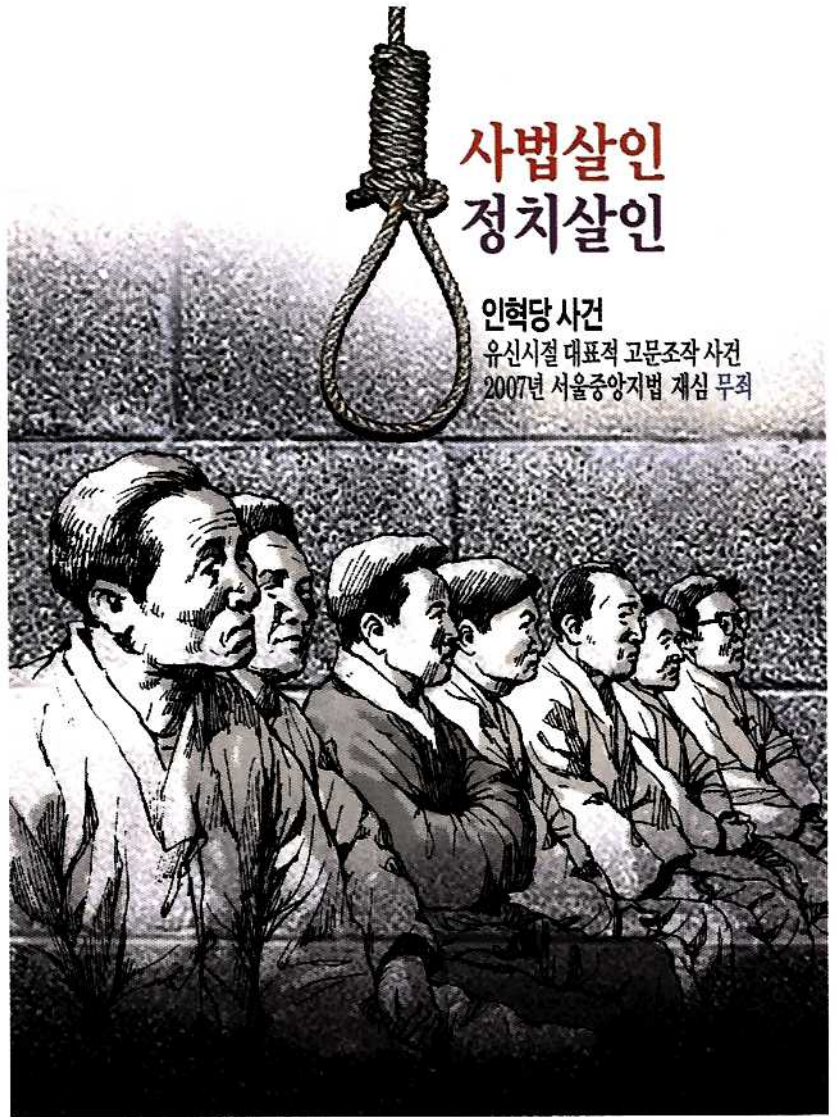


천명기

# 사법살인 정치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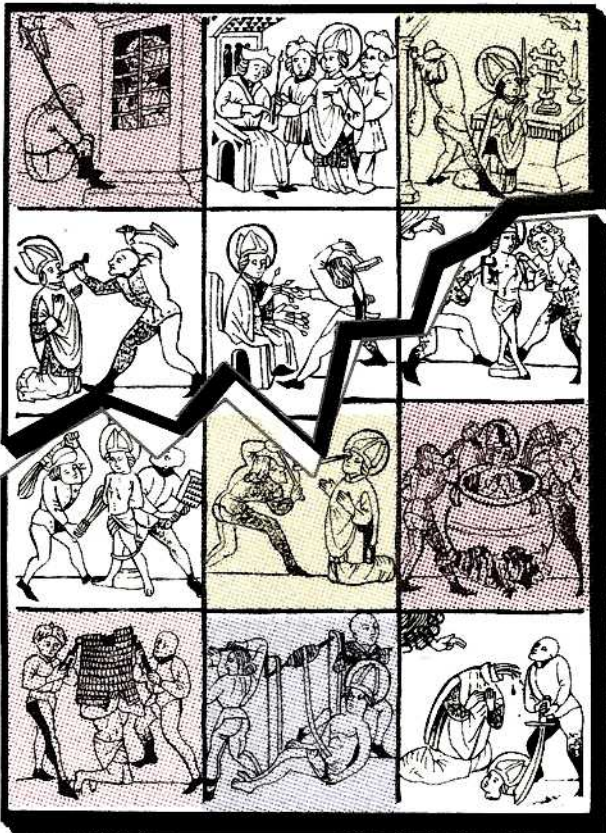
## 인혁당 사건

유신시절 대표적 고문조작 사건  
2007년 서울중앙지법 재심 무죄



김용민





이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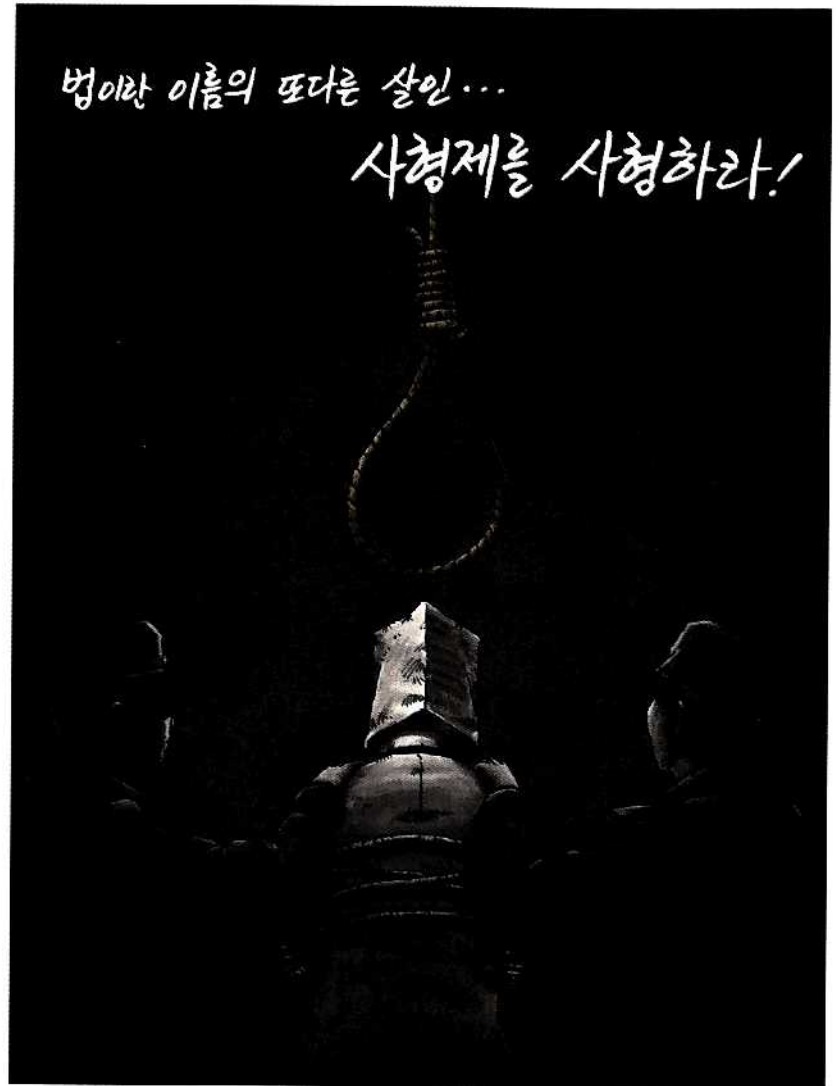


조영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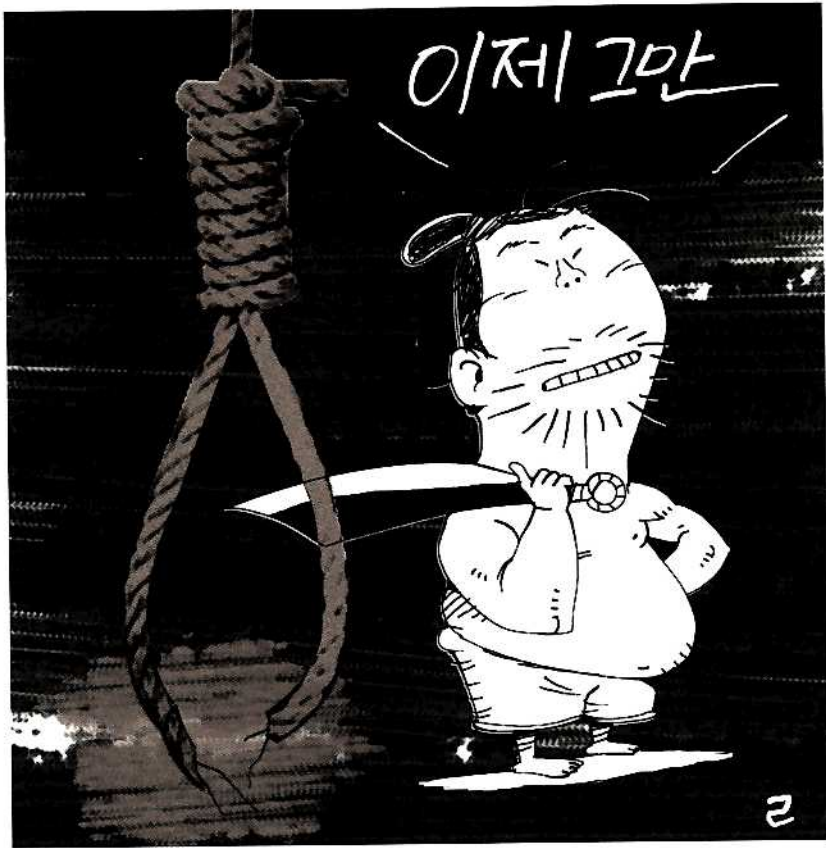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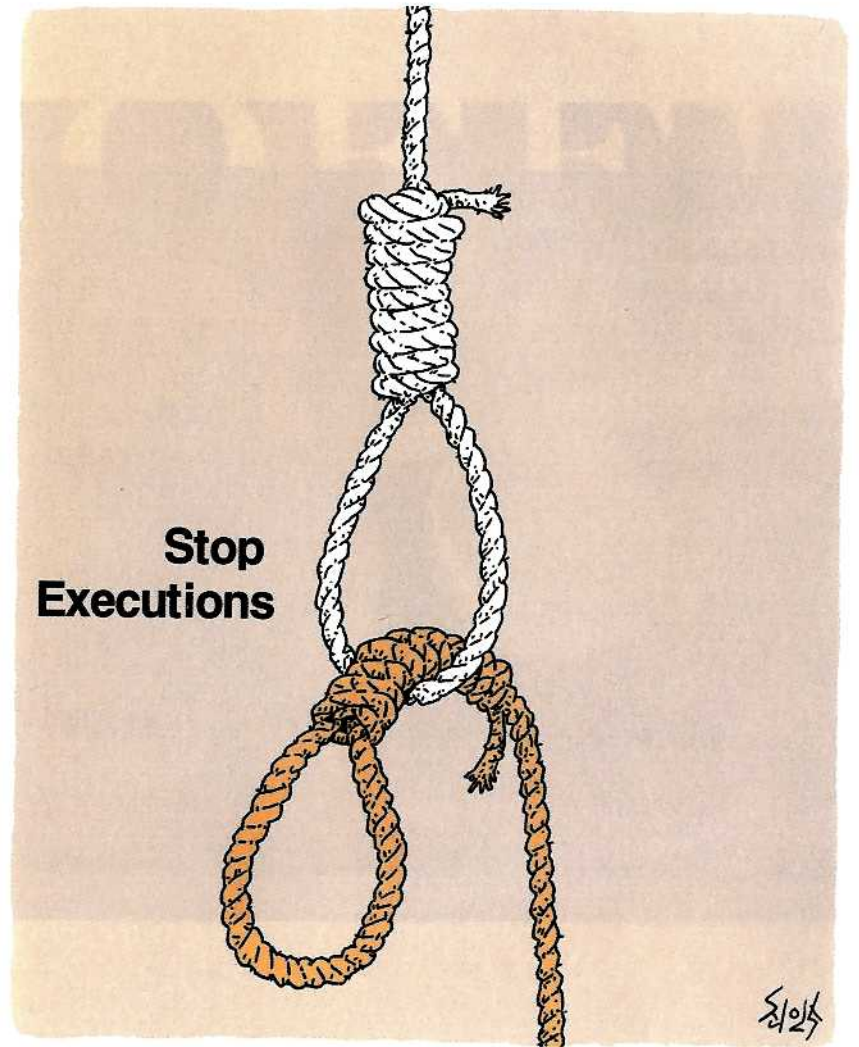
송정훈



심덕환



전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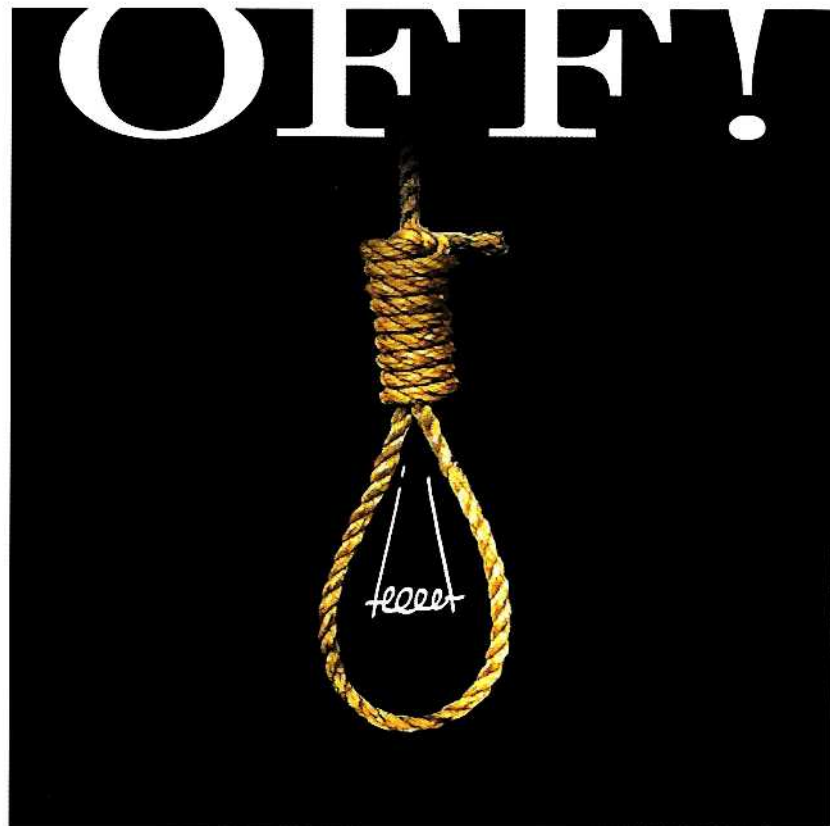


최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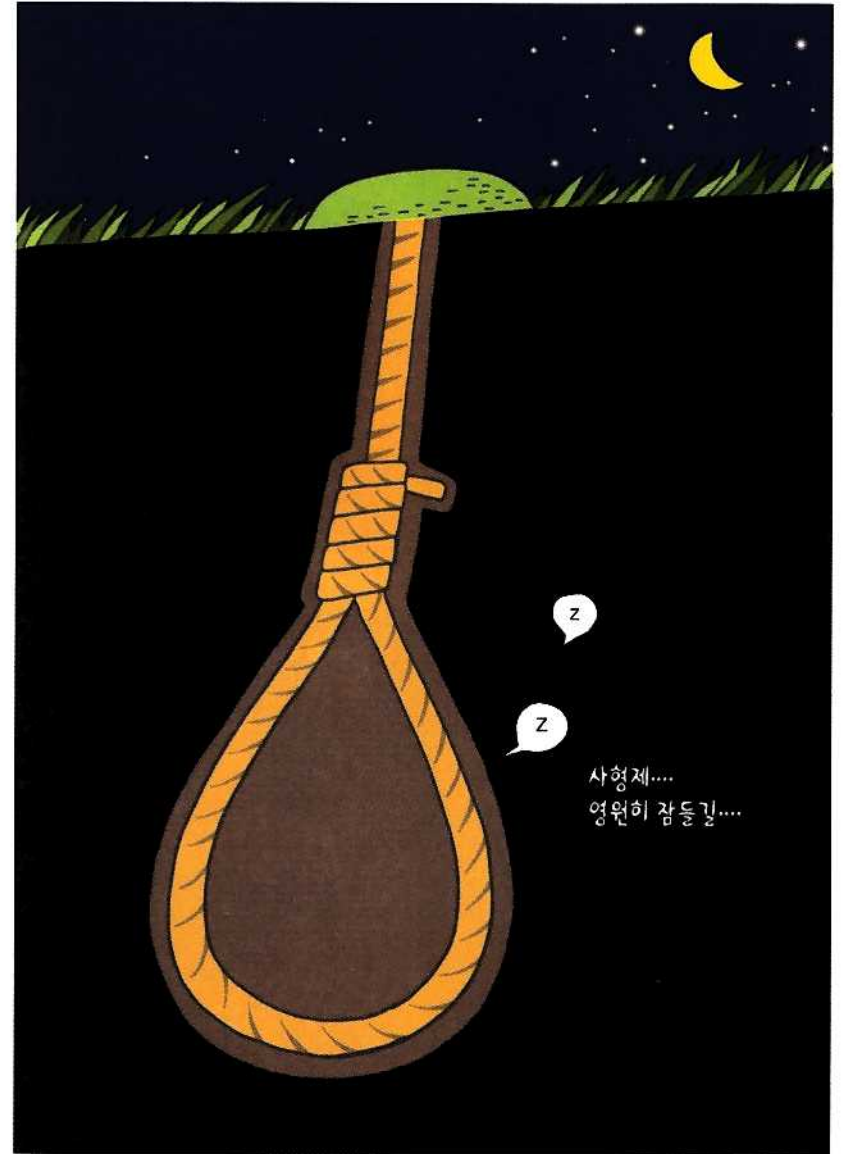
이창우



서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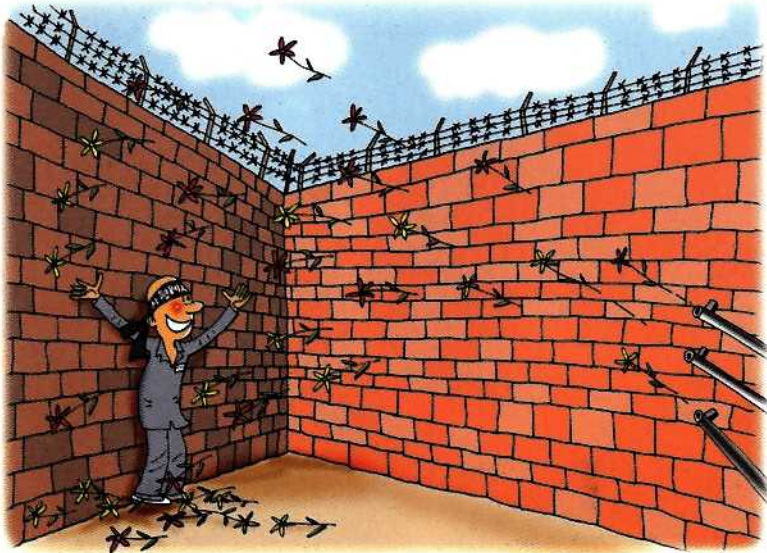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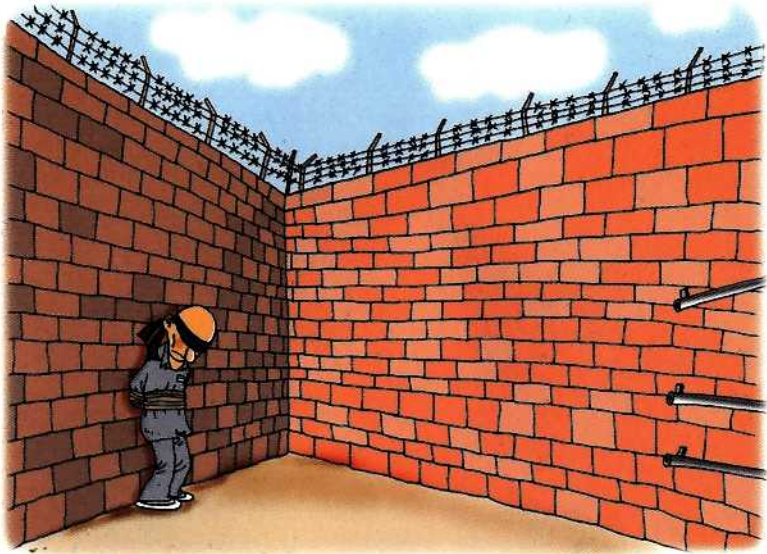
김흥기



사형제...  
영원히 잠들길...

정광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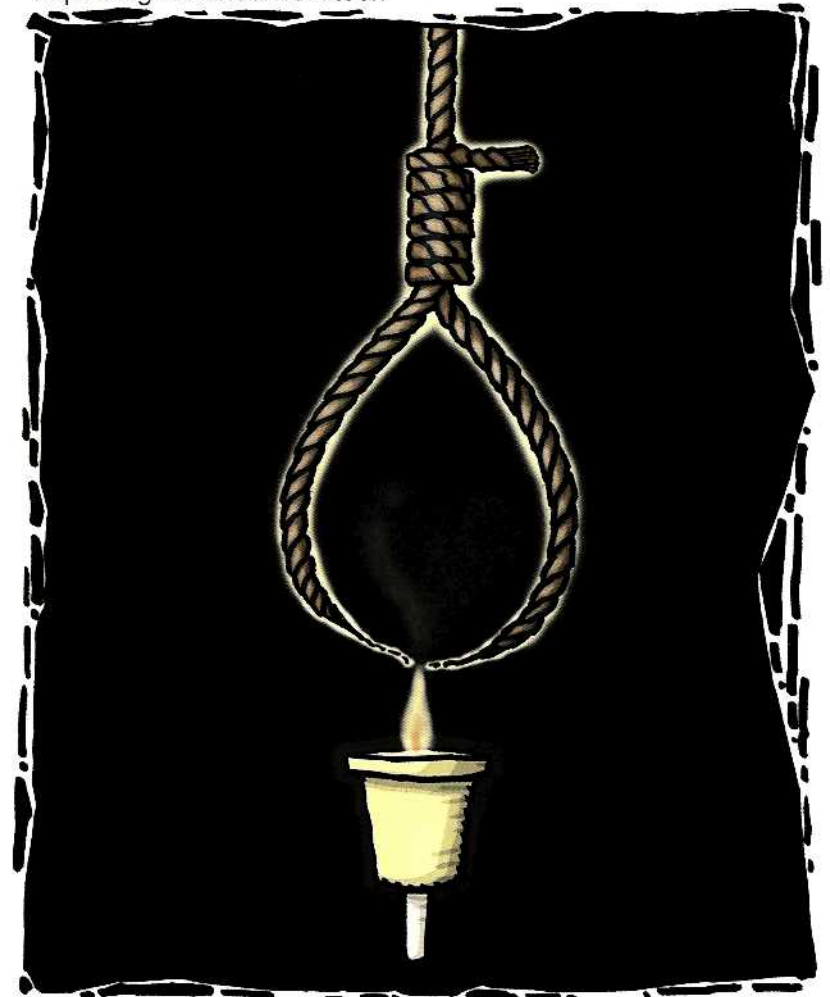
윤기현



이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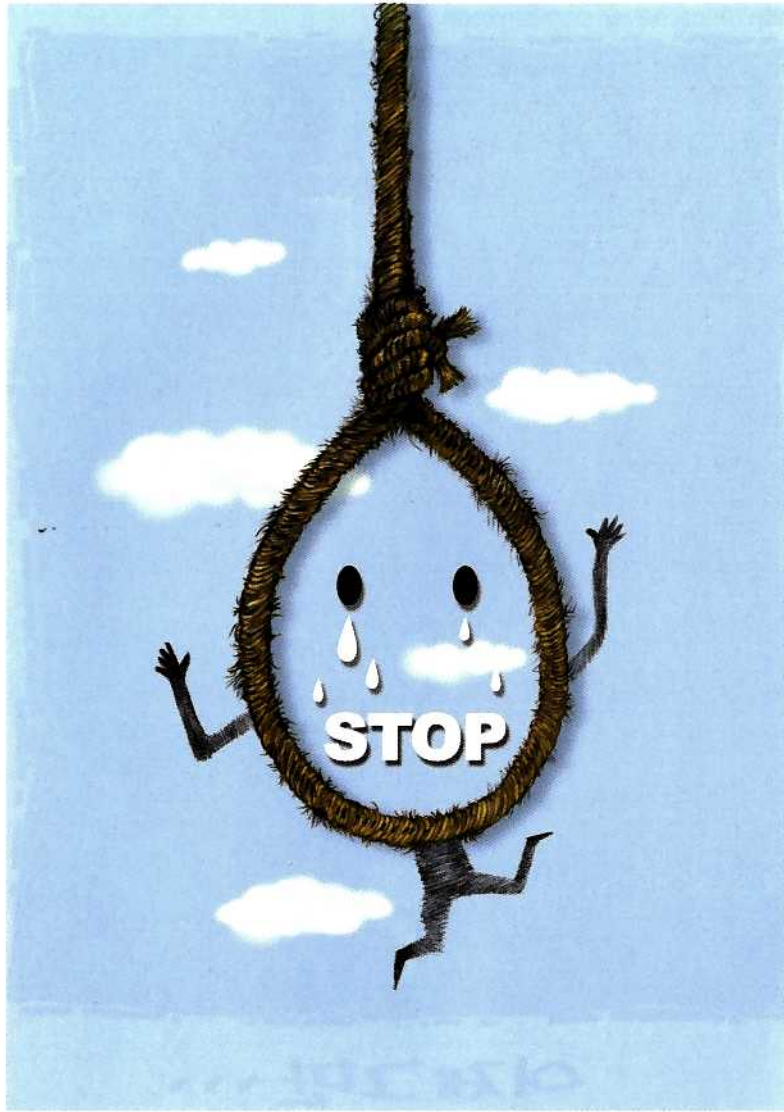


정 설



이제 그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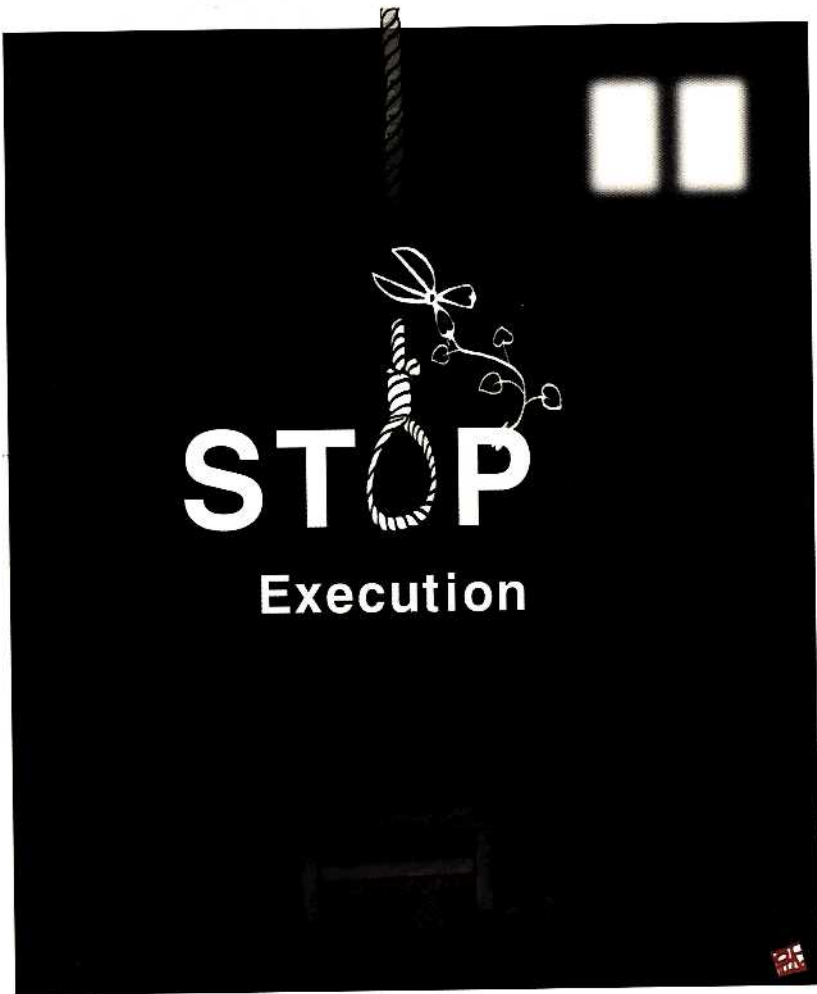




이해원



윤대영



정윤성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고나서, 만 10년이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가를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2007년 12월 30일,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007년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집행 중단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전세계 137개국에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가입 조건으로 사형폐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제정하고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은 2008년을 아시아 국가들의 사형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는 해로 정하고 대한민국, 일본, 대만,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등 6개국을 집중 캠페인 대상국으로 삼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는 인권선진국으로 하루 빨리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전세계 사형폐지 국가 현황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폐지된 국가 137개국

.....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가 92개국

..... 군법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가 10개국

..... 사형집행 10년 이상 없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35개국



사형제도폐지만평집  
이젠 완사폐(완전사형폐지)로!

초판 발행일 · 2008년 11월 30일

펴낸이 · 최기산

펴낸곳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143-912 서울시 광진구 중곡1동 643-1

T. 02-460-7622 F. 02-460-7629

<http://cjp.cbck.or.kr>